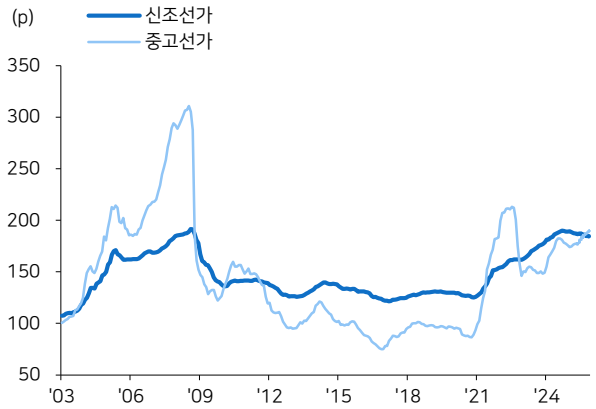
2025. 12. 8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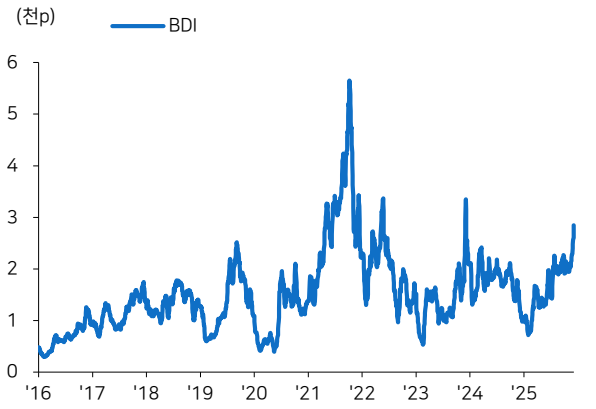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4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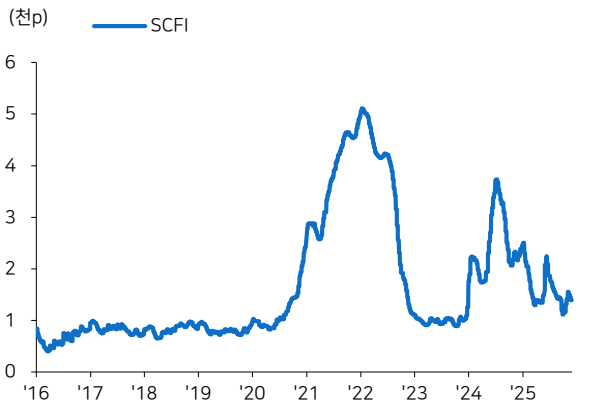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0.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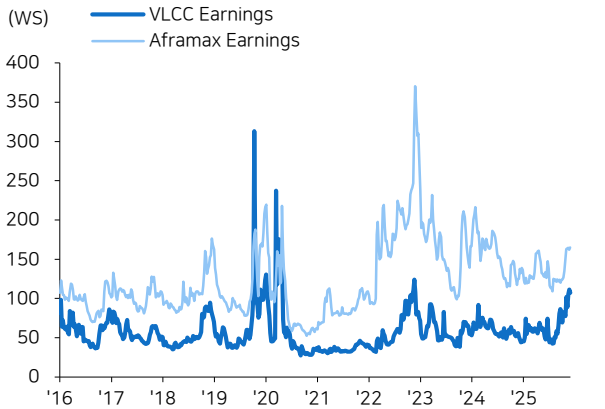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45.0p (+24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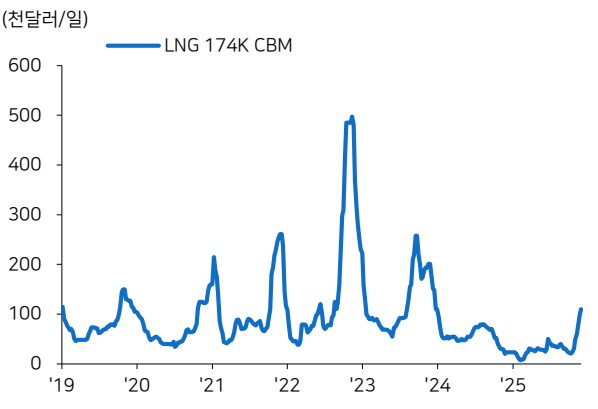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97.6p (-5.5p WoW)



VLCC Spot Rate 102.2WS (-5.0p WoW)



LNG Spot 운임 98.5천달러 (+11.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필리조선소 "美 현지 업체와 협력하는 '모듈식 공정' 도입 검토" **더구루**

한화필리조선소 데이비드 김 대표가 북미 최대 규모의 조선 박람회 IWBS에서 모듈식 공정을 활용해 일부 선박 건조를 외부에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해당 박람회에서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연 1.5척에서 20척으로 확대하는 50억달러 투자 계획과 추가 대형 크레인 · 로봇 장비 · 안벽 확보 및 인력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해짐. 김 대표는 한미 조선 협력과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된 정부 수요 신호 · 공급망 구축 · 인력 양성을 성공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3u473M2)

LNG newbuilding enquiry picks up with 2029 slots due to sell out next year **TradeWinds**

내년에 LNG 신조 발주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LNG 신조 문의가 증가하고 2029년 슬롯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030년 인도 제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향후 200 mtpa 신규 LNG 생산과 대규모 노후선 퇴역이 맞물려 400~450척 수준의 추가 수요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전해지며, 한국 조선사의 건조 능력을 고려하면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한편, 2030년대에는 용선자들의 노후 선박 기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LNG선이 대거 시장에서 배제될 전망이며, 향후 10년간 신조 발주의 절반이 교체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짐. (https://buly.kr/4QoOssY)

Shell walks away from initial phase of Argentina LNG project **Upstream**

영국 Shell이 아르헨티나 YPF의 Argentina LNG 1단계에서 철수한다고 보도됨. 두 회사는 12월에 해당 프로젝트의 FEED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YPF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Shell 참여 구간 규모가 연간 1,200만 톤에서 600만 톤으로 줄었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Eni와 아부다비 국영기업 Adnoc의 투자 부문인 XRG의 참여 단계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짐. YPF는 Shell을 대체할 파트너를 모색 중이며 LNG 프로젝트의 FID는 2026년 중반, 수출은 2030~2031년 시작 예상으로 알려짐. (https://buly.kr/613Dieo)

Chevron takes FID on $2 billion project at 'Australian icon' **Upstream**

미국 Chevron과 파트너사들이 호주 Gorgon 프로젝트의 30억호주달러 규모 Stage 3 개발에 FID를 내렸으며, 이는 Geryon · Eurytion 가스전을 기존 Gorgon 인프라와 연결해 2028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는 해저 타이백 개발로 알려짐. 이번 단계는 Jansz-Io 압축 프로젝트와 Stage 2를 보완해 Gorgon 생산을 유지하고 서호주 국내 가스 및 아시아향 LNG 장기 공급을 뒷받침할 전망으로 전해짐. Chevron은 향후 Stage 4를 위한 추가 가스전도 보유한 상태이며 공동투자자는 Chevron · ExxonMobil · Shell 등으로 보도됨. (https://buly.kr/CWvG11C)

한국 핵잠 시대 초읽기…K-조선 '30 년 숙원' 분기점 **데일리안**

한미가 원자력 · 조선 · 핵추진잠수함 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30년 넘게 교착됐던 한국의 핵잠 논의가 정책 · 산업 협력 단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 부족 속에 한화오션 필리조선소를 활용한 병행 건조 구상이 부상했으며, 규제 공정은 미국, 선체 제작은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가 양국에 실익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다만 건조 착수까지 최소 5년, 진수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하나, 이번 협의가 한국형 핵잠 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알려짐. (https://buly.kr/8phLQ1P)

李 "軍 기밀 빼돌린 곳과 계약 안 돼"…한화, KDDX 수주하나 **한국경제**

한미가 원자력 · 조선 · 핵추진잠수함 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에 착수하면서 30년 넘게 교착됐던 한국의 핵잠 논의가 정책 · 산업 협력 단계로 이동했다고 전해짐.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 부족 속에 규제 공정은 미국, 선체 제작은 한국이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이 제시된다고 보도됨. 건조 착수까지 최소 5년, 진수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인 기대는 경계해야 하나, 이번 협의가 한국형 핵잠 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알려짐. (https://buly.kr/8phLQ1P)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